

겁 없는 10대들 ... 머리에 총 겨누고 또래 폭행

미국의 10대 소년들이 또래 10대 한 명을 총으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의 동영상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문제의 동영상은 한 남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 누군가로부터 총으로 위협 받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13세 남학생이며,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은 알렉산더 슈라더(17)라는 소년을 포함한 2명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총으로 위협하며 자신들의 발에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거나, 이를 듣지 않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돈을 빼앗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일부 가해자가 해당 장면을 촬영했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에밀리 브리지스는 폭스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자폐 스펙트럼(지적장애가 수반되지 않는 자폐성 장애)을 앓는 아들이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아들이 문제의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어 "나는 미칠 듯이 화가났다. 내 아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줄 모르는 아이" 라며 "그 길로 경찰에 달려가 이를 신고했다." 고 덧붙였다.

브리지스는 다른 아이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동시에, 가해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절대 용서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들의 피해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18일, 경찰은 가해자들을 체포했고 모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자식이 21명 ... 역대급 다둥이 부부

역대급 다둥이 부부가 화제이다.

파라과이 레파트리아시온에 살고 있는 노부부 그레고리오 고메스(80)와 바실리아 아구아요(74)가 그 주인공. 지역에선 '슈퍼 부모' 로 널리 알려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부부는 아들 17명, 딸 4명 등 모두 21명의 자식을 뒀다.

10대 후반에 결혼을 한 할머니 아구아요는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첫 아들을 낳았다. 이후 1~2년 터울로 즐즐이 아이들이 태어났다. 마지막으로 출산의 기쁨을 누린 건 26년 전, 48살 때였다.

워낙 오래 전이라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 적지 않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할머니 혼자 집에서 출산했다. 할머니는 "남편이 산파를 부르러 간 사이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 고 말했다.

한 번은 유산의 아픔도 있었다. 몇 번째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할머니는 임신 3개월 만에 아기를 유산한 적이 있다. 이 아이까지 무사히 태어났더라면 22명의 자식을 두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인생의 20년 정도를 임신한 상태로 보냈다." 면서 "당시엔 힘들었지만 훌륭하게 자란 자식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 고 말했다.

할머니가 이처럼 많은 자식을 낳느라 고생을 했다면 할아버지는 경제적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했다. 할아버지 고메스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보통의 6배는 일을 한 것 같다" 고 했다.

그는 "원래 대가족을 갖는 게 소원이었다." 면서 "하느님과 아름다운 부인 덕분에 소원을 이루게 됐다. 자식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큰 기쁨이었다." 고 말했다.

아이를 지킨 반려견의 놀라운 행동

한 아이가 물가로 가까이 다가자 반려견 한 마리가 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 옷을 끌어당겨 물가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6일 트위터상에 처음 공개된 이 영상은 반려견이 어떻게 아이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영상을 보면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물에 빠진 공을 건지려는지 물가로 다가선다. 그러자 뒤에서 반려견이 나타나 아이 옷자락을 물고 물가에서 벗어나게 한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그다음에 이어진 반려견의 행동이다. 반려견은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공을 입에 물고 물 밖으로 나온다.



이 놀라운 모습으로 화제에 오른 게시물에는 수많은 사람이 반응을 보였다. "현명한 개다.", "아이를 지켜줘 고맙다.", "촬영자도 개를 신뢰하는 것", "이런 영상이라면 몇 번이라도 볼 수 있다."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10시30분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